「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2호(2025. 8): 123-146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9 No.2 (August 2025)
http://dx.doi.org/10.20484/klog.29.2.6

김해시 청년·중장년층의 이주의향에 관한 연구: 생활인프라와 사회통합 인식을 중심으로*

윤 정 윤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층(만 19-39세)과 중장년층(만 40-64세)을 대상으로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본부에서 조사한 「2024 지역정주 가치정향 모니터링」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차원(성별, 혼인상태, 학력, 소득, 거주기간)과 지역차원(생활인프라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일자리, 의료보건,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지역사회 소속감이 이주의향을 낮추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한 반면, 다문화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오히려 이주의향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중장년층의 경우, 학력, 거주기간, 일자리 및 안전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약자 존중 인식이 이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부산·창원 등 대도시권에 인접하면서도 독자적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김해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역 정주정책의 연령별 맞춤형 전략 수립에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이주의향, 지역 생활인프라, 사회통합 인식, 청년층, 중장년층

Ⅰ. 서론

최근 국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청년·중장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실증 기반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의향(migration intention)은 실제 이주 행동에 선행하는 심리적 지표로 주목받아 왔다(Lee, 1966; Lu, 1998). 이주의향은 개인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의사나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물리적 이동 여부를 넘어 지역에 대한 기대, 인식, 정서적 유대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주의향은 특정 시점의 이주 결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주 가능성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기능할 수 있으며, 지역 지속 가능성 확보의 선행적 조건으로서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

* 「2024 지역정주 가치정향 모니터링」 데이터를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본부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주의향의 결정요인을 경제적 요인 중심으로 설명해왔다. Todaro (1969)의 기대소득 가설을 비롯한 경제학적 접근은 고용의 기회, 소득 수준, 교육 기회 등 물리적·구조적 요인이 이주의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유대 등 정서적·심리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차원적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는 Amérigo & Aragonés(1997)의 주거환경 인식 모형이나 Putnam(2000)의 사회자본 이론이 주로 제시된다. 특히, 이들 이론은 주거환경이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신뢰, 정서적 연대감이 이주의향 형성에 있어 물리적 조건 이상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를 사례로 하여,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이주의향 결정요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해시는 경남 동부권의 중견 도시로 전통적 역사문화자원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청년친화 정책, 다문화 수용정책 등 다양한 정주 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창원 등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음에도 독자적인 생활권과 행정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인접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압력과 동시에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의 노력이 병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정책적 흐름에서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의 이주의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의 생애주기적 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의 물리적·정서적 인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거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청년층(만 19-39세)과 중장년층(만 40-64세)을 구분하여 연령집단 간 이주의향의 결정요인과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둘째, 생활인프라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이라는 물리적 기반과 정서적 인식의 지역 차원의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주의향의 다차원적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여건을 넘어 주민의 체감 만족도와 공동체 유대가 결합된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된 기존 연구와 달리, 중견도시이자 성장 가능성과 정주기반 간 불균형이 혼재된 김해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지방 정주 정책 수립에 보다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차원(성별, 학력, 혼인상태, 소득, 거주기간)과 지역차원(생활인프라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연령집단 간 영향요인의 작동 방식과 효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 정책의 연령별 세분화 전략 및 정책 효과의 구조적 이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이주의향 개념과 결정요인

이주의향(migration intention)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사나 계획을 의미한다(Lee, 1966; Kley & Mulder, 2010). 이는 실제 이주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주 행동의 선행적 지표로 간주되며 개인의 심리적 태도, 미래에 대한 전망, 기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주행동과는 구별된다(Lu, 1998). 최근 연구에서도 이러한 태도 수준의 이주의향이 실제 이동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책적 개입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지역 소멸이나 인구 이동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주의향은 정주 의식과 지역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전영옥·박세진, 2024; 이창관·박선주, 2024; 김현정 외, 2022; 정민영, 2023; 임태경, 2023).

이주의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주로 객관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크게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을 통해 발전해 왔다. 첫째, 경제학적 관점은 가장 전통적인 시각으로 Todaro(1969)의 기대소득가설을 중심으로 고용, 소득, 교육기회 등의 경제적 유인이 이주의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둘째, 공공선택이론은 Tiebout(1956)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ir feet) 개념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가장 잘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주거환경 만족도 모델은 Amérigo(1990)와 Amérigo & Aragones(1997)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객관적인 주거환경 요인이 개인의 특성과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이 주거 만족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 모형은 지역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기능적 조건을 넘어, 정서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주의향의 결정요인은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소득, 혼인상태, 거주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포함된다(Clark & Maas, 2015; 이지은·이경은, 2020; 이찬영·문재철, 2016; 송두범 외, 2015; 채성주 외, 2014; 김영주·유병선, 2012; 최열·김형준, 2012). 주관적 요인은 지역에 대한 만족도, 소속감, 안전 인식, 공동체 의식 등이며 이는 실제 이주보다 더 민감하게 이주의향에 영향을 준다(최재국·문국경, 2021; 서라벌·성욱준, 2019; 이찬영·문재철, 2016; 송두범 외, 2015; 임정빈 외, 2012; 이경환, 2008). 예컨대, 공공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높은 기대소득이 보장되더라도 이주의향을 자극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는 경제적 요인을 상쇄하는 경우도 있다(최재국·문국경, 2021).

최근에는 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주의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고학력 청년일수록 수도권 유입 경향이 강하며, 지역 불균형이나 일자리 부족은 이들의 이주의향을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김대영·정지범, 2024; 박성현·최혜지, 2024). 반면, 가족 요인이나 생활

여건이 안정적일수록 이주의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조택희·배민기, 2017; 이창관·박선주, 2024).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의향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 다차원적 요인의 상호작용과 맥락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지역 생활인프라 만족도와 이주의향

지역 생활인프라는 일상생활을 가능케하는 물리적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총합을 의미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생활인프라는 안전, 문화, 교육, 의료, 일자리, 주거환경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는 이주의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Amérigo & Aragonés, 1997). 특히 지방도시나 농어촌처럼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이 청년 및 중장년층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Tiebout(1956)의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역을 선택하며 이는 지역생활인프라에 대한 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 확률이 낮아진다는 실증적 해석으로 이어진다. 강영웅 등(2020)은 지방 공공서비스가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작동하며,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이주의향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강서윤(2022)은 물리적 인프라 외에도 그에 대한 인식 및 체감 만족도가 지역 애착과 이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생활인프라와 이주의향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강영웅 외, 2020; 정영아·김윤지, 2021; 고명철, 2016; 김윤서·김종진, 2016; 이경영·정문기, 2021)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생활인프라 만족이 이주의향 또는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지역간 맥락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컨대 전영옥·박세진(2024)의 대구·경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안, 교통, 의료 접근성 등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서의 이주 의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은·이경은(2020)은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 공공시설 접근성 등이 연령별 이주 결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고령층은 병원, 재래시장 등 일상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핵심 변수였으며, 청년층은 일자리와 교통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활인프라 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찬영·문제철(2016)은 지방 청년층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일자리, 교통, 문화시설 접근성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이정은(2022)은 산업도시의 청년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 공공공간의 개방성, 교통 편의성 부족이 이주의향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엄창옥 외(2018)는 귀향 청년의 분석을 통해 이주 결정에 있어 부모의 직업, 주택 보유 여부, 지역 내 사회적 인프라 체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창관·박선주(2024)의 연구에서는 문화, 교육, 의료, 일자리 등의 만족도 중, 다수 영역에서 불만족 할 경우 이주의향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활인프라를 단편적인 기능 수준 향상보다는 주민이 인식하는 전반적 삶의 질 차

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인프라 만족도를 안전, 교육, 문화예술, 의료보건, 일자리 등 다차원적 요소로 구성하고, 이를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차원의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3. 지역 사회통합 인식과 이주의향

지역 사회통합 인식은 물리적 기반이나 행정 서비스와는 별도로, 지역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적 연대감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 인식이다. 이는 이웃과의 신뢰, 공동체 소속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다문화 환경성 등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개인이 느끼는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연결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Putmam, 2000). 특히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정주의향이나, 이주의향에 있어 사회통합 인식은 물리적 생활여건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 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 일상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Putnam, 1993; 강서윤, 2022). 최재국·문국경(2021)은 공동체 연대의식, 이웃 신뢰도, 사회적 존중문화가 클수록 이주의향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강영웅 외(2020) 또한 이웃 간 유대, 약자 배려, 문화적 포용성을 포함한 사회적 신뢰 요소가 이주의향을 낮추는 핵심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합 인식이 이주의향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포용성, 다문화 환경성 등의 심리사회적 요소가 이주의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이정은(2022)은 산업도시에서 청년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배타성과 고립감이 높은 이주의향으로 이어진다고 하였고, 엄창옥 외(2018)는 귀향 청년들이 정주를 결정하는 주요 이유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들었다.

사회통합 인식은 지역 내 사회적 배려와 상호작용의 질이 주민 개인의 인식에 어떻게 내면화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창관·박선주(2024)는 신뢰, 협동, 소통과 같은 공동체 의식이 주민의 이주의향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인프라보다도 내생적 체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이지은·이경은(2020)은 연령에 따라 사회통합 인식이 정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하였으며,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있어 이웃과의 관계는 실질적인 정착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 간 신뢰, 공동체 소속감, 사회적 약자 존중, 다문화 환경 등을 지역사회 통합 인식의 핵심 하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차원에서의 사회통합 인식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주의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4. 연령집단별 이주의향 이질성

이주의향은 단순히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심리사회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동일한 지역 만족도나 사회통합 인식이라 하더라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이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주의향을 설명함에 있어 연령집단 간의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Carstensen et al.(1999)의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은 시간 인식이 인간의 목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젊은 세대일수록 미래지향적·기회 중심의 선택을, 중장년층은 현재지향적·정서 중심의 선택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은 연령에 따라 이주의향의 결정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주며, 청년층에게는 직업기회, 교육, 문화 접근성이 중요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성, 건강, 가족 등 정서적·생활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실증적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Clark & Maas, 2015; 이상림, 2009).

이지은·이경은(2020)은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하여 청년과 중장년층의 이주의향이 서로 다른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청년층은 문화적 다양성, 일자리 질, 주거비 부담 등을 중심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가족 정착, 지역관계,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정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희정(2025)은 충청권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 지역 내 행복 인식보다는 기회의 불균형, 일자리 질, 교육 여건이 이주의향에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노년층의 경우, 사회적 관계와 편의성, 의료 접근성 등의 요소가 이주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주·유병선, 2012; 김수영 외, 2017). 이상림(2009)은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보수적 선택 경향은 시간 자원의 유한성과 정서 안정에 대한 우선 욕구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이주의향이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주의향을 분석함에 있어 연령집단을 단일 변수로 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집단의 가치 체계와 심리적 반응 구조, 그리고 이들이 김해 지역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서 김해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년층(19-39세)과 중장년층(40-64세)을 구분[1]하여 동일한 독립변수가 집단별로 어떻게 상이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연령 기반의 지역정주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이론(Erikson, 1959)과 국내·외 이주행동 연구(Clark & Maas, 2015; 이지은·이경은, 2020), 정책 및 통계기관의 연령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청년층은 만 19-39세, 중장년층은 만 40-64세로 구분하였다.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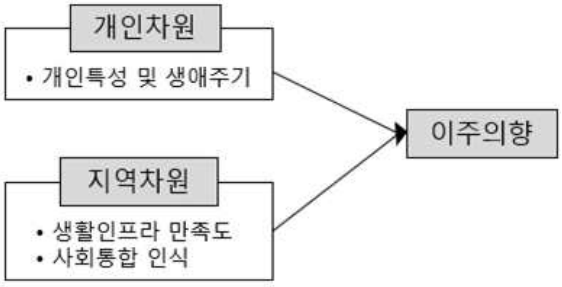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Amérigo & Aragonés(1997)의 주거환경 인식 기반 행동모형을 이론적 틀로 하여, 개인 차원과 지역 차원의 변인들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mérigo & Aragonés(1997)의 모형은 개인의 주관적 주거환경 평가가 이주의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주의향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틀을 재구성하여, 주거환경 평가를 매개로 두지 않고 개인 및 지역차원의 요인들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개인차원과 지역차원,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 개인차원에는 성별, 혼인상태, 학력, 소득, 거주기간 등 개인특성 및 생애주기적 요소가 포함된다. 이들은 분석모형에 선투입되어 통제변수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종속변수인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간주된다.

지역차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반영한 생활인프라 만족도(안전, 평생교육, 문화예술, 의료보건,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연대의식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사회통합 인식(이웃 신뢰, 소속감, 사회적 약자 존중, 다문화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은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개인의 생애주기적 특성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지역 생활인프라 만족도를 추가하여 물리적 환경의 영향력을 검토하며, 3단계에서는 사회통합 인식을 추가하여 사회심리적 요인의 설명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기존 이주의향 연구가 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경제·물리적 환경 등 일부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한계를 보완하였다. 개인차원, 지역 생활인프라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을 단계적으로 결합한 구조를 통해 물리적·사회심리적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특히 청

년층과 중장년층을 구분하여 동일 분석틀 안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세대별 이주 결정 요인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2. 분석자료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층(만 19-39세)과 중장년층(만 40-64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본부에서 시행된 「2024 지역정주 가치정향 모니터링」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인제대학교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주의식을 파악하고 지역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2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지역과 연령을 기준으로 한 층화집단 표집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지역은 김해, 창원, 부산이며 2024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를 활용하여 지역별 제곱근 비례 배분법을 적용한 뒤, 각 지역 내에서는 연령별 비례 배분법에 따라 표본을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79세 이하 시민이며,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1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생활인프라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 이주의향 등과 관련된 주요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이주의향에 초점을 두었기에 이에 따라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246명과 중장년층 420명, 총 66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이주의향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주의향이다. 이주의향은 개인이 현재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사나 계획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인 이주 여부를 나타내는 객관적 이동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주에 대한 심리적 태도 또는 가능성 인식을 중심으로 측정된다(Lee, 1966; Lu, 1998; Kley & Mulder, 2010). 이주의향은 「2024 지역정주 가치정향 모니터링」조사 문항 중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주할 의향이 있습니까?”에 대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답변은 ‘①없다, ②있다’ 이분화로 구성되었다.

(2) 독립변수: 지역차원(생활인프라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

본 연구는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활인프라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두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역차원 변수로 개념화하였다. 이

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애주기적 요인을 개인차원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인식을 지역차원으로 구분하여 차원별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 설계에 따른 것이다.

생활인프라 만족도는 지역 내 공공서비스 및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하며 안전 만족도, 평생교육 만족도, 문화예술 만족도, 의료보건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등 총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지역 내에서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개인의 이주 또는 정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간주된다(Amérigo & Aragonés, 1997). 특히 Tiebout(1956)의 공공선택이론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이 주민의 이주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생활인프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기에(전영옥·박세진, 2024; 서라벌·성욱준, 2019) 본 연구에서 생활인프라 만족도를 지역차원의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론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만족도 질문에 대한 모든 응답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사회통합 인식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웃 신뢰, 소속감, 사회적 약자 존중, 다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 등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포용성에 기반한 사회적 유대와 정서적 애착을 반영하며, 개인의 지역 이주나 정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이해된다(Kley & Mulder, 2010). 특히 Putnam(2000)은 공동체 내 신뢰와 연대가 거주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주의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강영웅 외, 2020; 최재국·문국경,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유대감과 포용성이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거주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웃 신뢰는 이웃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①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신뢰하지 않는다, ③보통, ④어느정도 신뢰한다, ⑤매우 신뢰한다'의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속감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동네)에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약자 존중은 "우리 지역은 노인, 아동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있다."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다문화 환경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다문화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항목 모두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생활인프라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을 지역차원의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의 물리적 기반과 사회적 유대라는 두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주의향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이주의향의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애주기적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차원 변수들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이주의향이 단지 지역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 가구 구성, 교육 및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Clark & Maas, 2015; 이상림, 2009). 특히 Lu(1998)와 Kley(2011)는 이주의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기회와 제약의 구조뿐 아니라, 가족 구조나 연령, 소득 같은 삶의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별, 혼인상태, 학력, 소득, 거주기간 등 총 다섯 가지 변수로 통제변수를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0)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고, 혼인상태는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및 사별'로 측정하였으며, 미혼(0)을 기준으로 각각의 범주를 더미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학력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①고졸 이하, ②전문대 졸, ③4년제 졸 이상'으로 구분하고, 4년제 졸 이상(0)을 기준으로 각각의 범주를 더미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소득은 2024년 기준, 세금 납부 전 월평균 총 가구소득을 '①300만원 미만, ②300~500만원, ③500만원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300만원 미만(0)을 기준으로 각각의 범주를 더미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거주기간은 응답자가 현재 지역에 거주한 기간(년 단위)으로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통제변수들은 개인의 삶의 조건과 이주의향 간의 기저 영향을 반영하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주요 통제요인으로 설정되어 왔다(Kley & Mulder, 2010; 이지은·이경은,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단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1단계에 투입하여 지역 차원의 변수들이 갖는 설명력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측정 도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정 정의

개념		측정변인	조작정 정의
개인차원	개인특성 및 생애주기	성별	① 남, ② 여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및 사별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졸 이상
		소득	① 300만원 미만, ② 300-500만원, ③ 500만원 이상
		거주기간	거주 년 수
지역차원	생활인프라 만족도	안전 만족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평생교육 만족도	
		문화예술 만족도	
		의료보건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	이웃 신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소속감	
		사회적 약자 존중	
		다문화 환경	
이주 의향			① 없다, ② 있다.

Ⅳ.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층(만 19-39세)과 중장년층(만 40-64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66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청년층은 남성 125명(50.81%), 여성 121명(49.19%)으로 성별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중장년층은 남성 188명(44.76%), 여성 232명(55.24%)으로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기혼자는 444명(66.67%)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은 194명(29.13%), 이혼 및 사별은 28명(4.20%)이었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미혼 응답자가 173명(70.3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기혼은 68명(27.64%), 이혼 또는 사별은 5명(2.03%)에 불과하였다.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기혼자의 비중이 376명(89.52%)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미혼은 21명(5.00%), 이혼 및 사별은 23명(5.48%)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혼인상태 분포가 뚜렷이 구분되었다.

학력 분포는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290명(48.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고졸 이하 255명(33.78%), 전문대 졸업은 121명(18.17%)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4년제 졸 이상이 60.57%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은 고졸 이하(50.0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세대 간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소득 수준은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300-500만원 구간이 285명(37.24%)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은 223명(33.48%), 300만원 미만은 158명(29.28%)으로 분포하였다. 청년층은 300-500만원이 가장 많았고, 300만원 미만도 29.68%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중장년층은 300-500만원 구간이 45.48%, 500만원 이상이 34.29%로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거주기간은 청년층의 경우 평균 21.21년, 중장년층은 평균 28.05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평균은 25.54년이었다. 이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 내 장기 거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응답자 특성은 연령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조건, 혼인 상태, 교육 수준, 그리고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표 2〉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범주	청년층(N=246)		중장년층(N=420)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25	50.81	188	44.76	313	47.00
	여성	121	49.19	232	55.24	353	53.00

혼인 상태	미혼	173	70.33	21	5.00	194	29.13
	기혼	68	27.64	376	89.52	444	66.67
	이혼 및 사별	5	2.03	23	5.48	28	4.20
학력	고졸 이하	45	18.29	210	50.00	255	33.78
	전문대 졸	52	21.14	69	16.43	121	18.17
	4년제 졸 이상	149	60.57	141	33.57	290	48.05
소득	300만원 미만	73	29.68	85	20.23	158	29.28
	300-500만원	94	38.21	191	45.48	285	37.24
	500만원 이상	79	32.11	144	34.29	223	33.48
거주기간 평균(년) (표준편차)		21.21 (10.21)		28.05 (14.21)		25.54 (13.30)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응답자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지역생활인프라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지역생활 인프라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안전 만족도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청년 3.642, 중장년 3.664). 반면, 일자리 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낮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청년 2.675, 중장년 2.726). 의료보건 만족도의 경우, 청년층은 평균 2.818로 나타났고, 중장년층은 평균 2.645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청년층은 일자리와 의료보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이는 청년층의 이주의향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통합 인식과 관련된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3점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청년층은 사회적 약자 존중(3.297), 소속감(3.267), 다문화 환경(3.264), 이웃 신뢰(3.264)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경우, 이웃 신뢰(3.635)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약자 존중(3.339), 소속감(3.274), 다문화 환경(3.255) 순이었다. 이는 중장년층이 지역사회 내 상호 신뢰와 배려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청년층(N=246)		중장년층(N=42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활 인프라 만족도	안전 만족도	3.642	0.712	3.664	0.727
	평생교육 만족도	3.130	0.847	3.157	0.828
	문화예술 만족도	3.143	0.839	2.938	0.846
	의료보건 만족도	2.818	0.868	2.645	0.843
	일자리 만족도	2.675	0.885	2.726	0.756

사회통합 인식	이웃 신뢰	3.264	0.903	3.635	0.734
	소속감	3.267	0.878	3.274	0.781
	사회적 약자 존중	3.297	0.743	3.339	0.691
	다문화 환경	3.264	0.750	3.255	0.717

또한, 종속변수인 이주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666명 중, 160명(24.02%)이 '이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06명(75.98%)은 '이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청년층의 35.77%(88명)가 '이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장년층(17.14%)에 비해 이주의향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 이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층 64.23%(158명), 중장년층 82.86%(348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에 따라 이주의향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분석에서 지역 만족도나 사회통합 인식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이주의향 응답 분포(연령집단 별)

이주의향	청년층(N=246)		중장년층(N=420)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없음	158	64.23	348	82.86	506	75.98
있음	88	35.77	72	17.14	160	24.02
전체	246	75.98	420	24.02	666	100

2. 주요변수(생활인프라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변수들 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인프라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하위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상관분석 결과는 각각 〈표 5〉, 〈표 6〉와 같다.

〈표 5〉는 생활인프라 만족도 다섯 개 하위 항목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모든 항목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 만족도와 의료보건 만족도 간($r=.632$, $p<.001$), 평생교육 만족도와 문화예술 만족도 간($r=.516$, $p<.001$)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항목들이 지역의 문화적·복지적 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감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일자리 만족도는 다른 항목들과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자리 환경에 대한 평가는 타 생활 영역과 비교적 독립적으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모든 상관계수는 .7이하로, 생활인프라 하위 요인들 간에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생활인프라 만족도 간 상관관계

구분	안전	평생교육	문화예술	의료보건	일자리
안전	1				
평생교육	0.381***	1			
문화예술	0.297***	0.516***	1		
의료보건	0.244***	0.483***	0.632***	1	
일자리	0.269***	0.326***	0.276***	0.364***	1

주) *p 〈 0.1, **p 〈 0.05, ***p 〈 0.01

〈표 6〉은 사회통합 인식의 네 개 하위 항목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약자 존중과 다문화 환경 간 상관계수(r=.607, p〈.001)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두 항목이 공통된 포용성과 다양성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속감과 사회적 약자 존중(r=.331, p〈.001), 소속감과 다문화 환경 인식(r=.276, p〈.001)도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이웃 신뢰와 다문화 환경 간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r=.135, p〈.001)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내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인식과 문화적 다양성 인식이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사회통합의 차원을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사회통합 인식 간 상관관계

구분	이웃 신뢰	소속감	사회적 약자 존중	다문화 환경
이웃 신뢰	1			
소속감	0.181***	1		
사회적 약자 존중	0.171***	0.331***	1	
다문화 환경	0.135***	0.276***	0.607***	1

주) *p 〈 0.1, **p 〈 0.05, ***p 〈 0.01

이상의 결과는 생활인프라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하위 요인들이 상호 일정 수준의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개별적으로 구분 가능한 독립된 개념 차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하위 변인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 없이 이주의향에 대한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타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년 및 중장년의 이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

이주의향 결정요인이 연령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층(만 19-39세)과 중장년층(만 40-64세)을 구분하여 이항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총 세 단계의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모형 1에서는 성별, 혼인상태, 학력, 소득, 거주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및 생애주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개인차원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지역생활인프라 만족도(안전, 교육, 문화예술, 의료보건, 일자리) 변수를 추가하여 물

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사회통합 인식(이웃 신뢰, 소속감, 사회적 약자 존중, 다문화 환경 인식)을 포함시켜 지역차원에서의 정서적·사회심리적 요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모형은 연령집단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1) 청년층의 이주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

청년층의 분석 결과, 모형 1에서는 성별과 혼인상태가 이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주의향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이주의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Clark & Maas, 2015; 엄창옥 외, 2018; 김수영 외, 2017; 이지은·이경은, 2020) 결혼 및 가족 구성 여부가 거주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결과이다. 김해시는 인근 대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 생활친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2]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결혼한 청년층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형 2에서 생활인프라 만족도가 추가되었을 때는 문화예술, 의료보건, 일자리 만족도가 모두 이주의향을 낮추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Amérigo & Aragones(1997)의 주거환경 인식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이 지역의 공공서비스나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정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일자리 만족도가 이주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정주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하며, 청년층의 이주의향이 단순한 정주 여부라기보다도 기회의 확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Todaro(1969)의 기대소득가설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김해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용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김해시 전체 고용의 상당수가 중소 제조업체에 편중되어있다. 특히 지역내총생산의 약 45%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영세 중소 제조업체(97.3%가 50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직종이나 지식기반 산업 기회가 부족하다. 실제로 2024년 김해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김해시 청년들은 김해시 일자리가 제조업 한 업종으로 치우쳐져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년층의 정주율의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양적 확대를 넘어, 청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질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보건과 문화예술 만족도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는 점은, 김해시의 병원 접근성이나 문화시설 분포가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생활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타 지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경우, 이주의향을 자극할 수 있는 잠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이는 Amérigo & Aragones(1997)의 주거환경 인식 모

2) 김해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시정 과제로 내세우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 가정 보육 지원 등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김해시청, 2024),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및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김해의 전·월세 가격은 인근 광역시(부산, 창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국토교통부, 2023).

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이 체감하는 생활기반시설의 질이 거주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모형 3에서는 사회통합 인식 요인을 추가하였으며, 소속감과 다문화 환경 인식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반영하는 변수인 소속감은 부적 영향을 보였다. 즉, 청년층이 해당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이주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연결성이 정주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이라는 Kley & Mulder(2010)와 Putnam(2000)의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 한다. 김해시는 부산·창원 등 대도시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생활권과 문화 기반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김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게 느낄수록,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문화 환경 인식이 이주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 행사나 정책 등이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반드시 지역 정주 의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연구의 응답자는 모두 다문화정책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일반 청년(비다문화가정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강화가 오히려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 또는 문화적 거리감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윤경훈·강정인, 2019; 김영숙·우정한, 2012). 이는 기존 다문화 정책이 소수자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반 청년에게는 정체성의 공감이나 실질적 정책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반응(backlash)'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친화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청년층에게는 지역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원이 분포한 외부 지역에 대한 탐색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는 김해시 청년층의 이주의향이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의료, 문화 등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평가, 정서적으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형성됨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 환경성과 같은 개방적 인식이 정주보다는 이주의 동기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의향에 대한 해석은 단일한 방향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가치 지향과 심리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김해시 청년 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통 기반 및 문화 커뮤니티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중장년층의 이주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

중장년층의 분석 결과, 모형 1에서는 학력과 지역 내 거주기간이 이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고졸 이하 학력 집단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이주의향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주의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해 지역 중장년층의 이주의향이 교육 수준과 지역 내 체류 경험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며, 장기

간의 생활 기반이 형성될수록 지역애착이 강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해시는 경남권 산업도시로서, 다년간 동일 지역 내 고용 및 생활이 지속된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므로 거주 안정성과 생애주기적 정착 경향이 이주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지역생활 인프라 만족도 다섯 개 하위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안전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는 이주의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반면 문화예술 만족도는 이주의향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정(+)의 효과를 보였다. 김해시의 경우, 산업단지 중심의 고용 기반과 최근 도시재생을 통한 안전환경 개선 정책이 중장년층에게 안정적 생활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 기반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간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중장년층은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더 풍부하고 다양한 외부 문화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단순히 정주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양질의 문화예술 활동을 누리기 위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형 3에서는 사회통합 인식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 존중 인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지역 내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가 존재한다고 느낄수록 지역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더 크게 체감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주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Putnam(1993)의 사회자본 이론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해시는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활기찬 고령화도시 김해'를 비전으로 ICT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노인 친화도시 정책,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책 기반이 중장년층에게 사회적 배려 환경으로 인식될 경우, 정주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웃 신뢰, 소속감, 다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은 방향성은 대부분 부(-)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중장년층의 이주의향이 청년층과는 다른 구조로 설명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교육수준과 거주기간이라는 생애주기적 요인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지역 내 안전과 일자리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화적 통합 요소 중에서는 '배려와 존중'의 정서적 기반이 중요한 정착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Carstensen et al.(1999)의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장년층은 미래의 기회보다는 현재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내 관계의 질을 우선시하며 주거 결정을 내린다는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김해시 중장년층의 이주의향은 지역 내 고용 안정성, 생활 안전, 사회적 배려 인식 등 정서적 신뢰 기반과 공동체 안정성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노년 친화 기반 확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지역 안전 인프라 개선과 같은 정서적·사회적 안정 기반 강화 전략이 이주의향을 감소시키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이주의향은 서로 다른 요인 구조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성별과 혼인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 외에도 문화예술·의료보건·일자리 만족도, 소속감, 다문화 환경 인식이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소속감은 이주

의향을 낮추는 반면, 다문화 환경 인식은 이주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층은 학력과 거주기간, 안전·일자리 만족도, 사회적 약자 존중 인식이 이주의향을 낮추었으며, 문화예술 만족도는 오히려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기회의 확장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반응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생애주기적 안정성과 공동체의 정서적 신뢰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표 7〉 청년 및 중장년의 이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변수				청년층(N=246)			중장년층(N=420)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Std. Err.)	(Std. Err.)	(Std. Err.)	(Std. Err.)	(Std. Err.)	(Std. Err.)
개인 차원	개인특성 및 생애주기	성별(기준변수:남성)		-0.498*	-0.552**	-0.684**	0.151	0.073	0.178
				(0.269)	(0.272)	(0.318)	(0.279)	(0.290)	(0.300)
		혼인상태(미혼)	기혼	-1.200***	-1.201***	-1.239***	0.764	0.724	0.711
				(0.360)	(0.368)	(0.386)	(0.771)	(0.822)	(0.831)
			이혼 및 사별	-1.073	0.057	-1.575*	-0.043	-0.051	0.101
				(1.150)	(0.395)	(1.182)	(1.073)	(1.136)	(1.163)
		학력(4년제 졸)	고졸이하	-0.122	0.057	0.104	-0.852***	-0.881***	-0.845***
				(0.380)	(0.395)	(0.407)	(0.307)	(0.333)	(0.324)
			전문대 졸	-0.324	-0.326	-0.236	-0.844**	-0.898**	-0.837**
				(0.369)	(0.384)	(0.394)	(0.405)	(0.431)	(0.428)
		소득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0.138	-0.205	-0.278	-0.386	-0.260	-0.224
				(0.352)	(0.378)	(0.397)	(0.391)	(0.403)	(0.413)
			500만원 이상	0.030	0.061	-0.037	-0.304	-0.197	-0.215
				(0.361)	(0.383)	(0.397)	(0.415)	(0.433)	(0.446)
		거주기간		0.002	0.002	0.003	-0.021**	-0.029**	-0.019*
				(0.457)	(0.015)	(0.015)	(0.010)	(0.011)	(0.010)
지역 차원	생활 인프라 만족도	안전 만족도			0.101	0.131		-0.541**	-0.444**
					(0.230)	(0.258)		(0.214)	(0.224)
		평생교육 만족도			-0.013	-0.041		-0.020	-0.007
					(0.205)	(0.213)		(0.224)	(0.234)
		문화예술 만족도			-0.309**	-0.352**		0.324**	0.311**
					(0.108)	(0.114)		(0.128)	(0.144)
		의료보건 만족도			-0.402*	-0.425*		-0.010	0.034
					(0.159)	(0.191)		(0.228)	(0.238)
		일자리 만족도			-0.359***	-0.395**		-0.657***	-0.551**
					(0.121)	(0.120)		(0.222)	(0.230)
	사회통합 인식	이웃 신뢰				0.057			-0.052
						(0.187)			(0.213)
		소속감				-0.299**			-0.147
						(0.120)			(0.217)
		사회적 약자 존중				0.126			-0.611***
						(0.276)			(0.211)
		다문화 환경				0.353**			0.136
						(0.132)			(0.268)
		Pseudo R^2		0.081	0.108	0.131	0.049	0.106	0.125
		관측치 수(N)		246			420		

주) *p 〈 0.1, **p 〈 0.05,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층(만 19-39세)과 중장년층(만 40-64세)을 대상으로 개인차원(성별, 혼인상태, 학력, 소득, 거주기간)과 지역차원(생활인프라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령집단 간 요인 작용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이주의향은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특히 김해시의 지역적 특성이 이러한 영향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의료보건,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이주의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지역 내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청년층의 이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일자리 만족도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이 이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해시는 인근 대도시권(부산, 창원 등)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지식기반 직종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전체 고용 구조 또한 중소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과의 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이주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이주의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적인 일자리 확대를 넘어, 질적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예술 및 의료보건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주의향을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결과는, 김해시가 최근 도시재생사업, 공공의료체계 강화,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을 통해 생활친화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충해온 정책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청년층의 이주의향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 김해시가 독립 생활권을 갖춘 중견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공동체 정체성과 정서적 유대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함을 시사한다.

한편, 다문화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주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해시가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왔지만 비수혜 청년층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문화적 거리감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다문화 친화 환경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정책은 필요하지만, 지역 내 다양한 주민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 중심의 정책 수혜구조는 일반 청년층에게 부정적 역반응(backlash)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장년층의 경우, 학력과 지역 거주기간이 이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생활인프라 중에는 일자리와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해시는 제조업 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최근에는 방범환경 개선, 스마트 CCTV 설치 등과 같은 생활안전 인프라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이주의향을 낮추게 할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 인식 중에서는 사회적 약자 존중 인식만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는데 이는 김해시가 최근 '고령친화도시 김해' 조성과 노인돌봄 통합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 강화 등 사회적 배려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 흐름과 연관된다.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중장년층이 지역의 돌봄 환경을 체감하며 정서적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는 김해시가 보유한 지리적 이점(대도시 인접), 산업 기반(제조업 중심), 인구구조(고령화 가속), 정책방향(다문화·청년·고령친화 정책) 등이 주민의 이주의향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일자리와 정서적 소속감, 중장년층에게는 생활안전과 사회적 배려문화가 이주의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민의 이주의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령별 요인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청년층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다변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과 문화·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이주 의향을 줄이고, 청년 커뮤니티 지원 및 참여형 지역 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은 안전과 일자리 만족도가 핵심 요인이므로 생활안전망 확대와 중장년 재취업·전직 지원 등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존중과 돌봄 인프라 강화는 공동체 신뢰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므로, 고령친화 정책과 연계한 복지·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환경 인식이 일부 집단에서 이주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정책 수혜 대상을 특정 집단에 한정하기보다 지역 구성원 전체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포용적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행사를 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축제·교육·문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전략은 연령별 요구를 반영하여 정주 의향을 강화하고,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횡단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에 이주의향의 변화 과정이나 장기적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패널 조사를 통해 역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가족관계, 사회적 참여 경험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상 이러한 변수들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셋째, 김해시라는 특정 지역 사례에 한정된 결과로, 일반화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유사한 규모의 중견도시 간 비교연구를 통해 지역 맥락에 따른 이주의향 결정요인의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중장년층의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주의향을 낮추기 위한 정책 방향성과 실행 기반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연령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실천적 기여를 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분석틀을 토대로 시간적, 공간적, 맥락적 다양성을 확장한 후속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이주 대응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서윤. (2022). 지역의 사회자본과 인식, 거주기간 간 관계 분석: 살고 싶은 지역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도시행정학보」, 25(4): 193-213.
강영웅·이승종·이혜림. (2020). 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한국행정학보」, 54(3): 107-140.
고명철. (2018).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신뢰에 의한 지역사회 생활의 질(community QoL)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22(2): 119-146.
국토교통부. (2023).「2022 주거실태조사 결과」. 세종:국토교통부.
김리영·양광식. (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1-19.
김수영·오찬옥·문경주. (2017).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3): 35-43.
김영숙·우정한. (2012).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다문화콘텐츠연구」, 13: 69-103.
김영주·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대학건축학회 논문집」: 219-226.
김윤서·김종진. (20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주거환경」, 14(4): 73-90.
김현우·양준석. (2024). 대졸 청년 취업 이동에서의 인적자본 특징의 변화.「국토연구」, 121: 43-58.
김현정·박찬익·박관아. (2022). 혁신도시 이주형태와 도시 정주환경과의 상관관계 분석.「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1): 27-48.
김해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2024).「청년이 떠나지 않는 김해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보고서. 김해:김해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김해시청. (2024).「2024 김해시 시정백서」. 김해:김해시청.
문경주·장수지. (2020). 다층모형을 이용한 부산지역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항도부산」, 39: 413-448.
서라벌·성욱준. (2019).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질이 이주 의향에 미친 영향 연구: 경기도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하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4): 199-223.
송두범·임준홍·홍성효.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도시행정학보」, 28(1): 127-146.
엄창옥·노광욱·박상우(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오미영. (2008).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327-350.
유나영·이기훈·마강래. (2022).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지역연구」, 38(4): 19-29.
윤경훈·강정인. (2019). 한국 다문화주의 연구의 다문화 정책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맥락 없는 다문화주의?.「한국정치연구」, 28(2): 89-116.

이경영·정문기. (2021).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이 분석: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만25세~49세)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2): 203-227.

이경환. (2008).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주거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3(5): 23-33.

이상림. (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이동. 「한국인구학」, 32(3): 43-72.

이승권·이학동. (2010). 수도권 노인·비노인 인구의 공간분포 및 이동특성. 「한국주거환경학회지」. 8(2): 193-210.

이정은. (2022). 산업도시의 젠더 인식과 청년들의 이동 : 경남 창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43: 282-316.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이찬영·문제철. (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 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이창관·박선주. (2024).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 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1-33.

이희정. (2025). 고학력 지역 청년의 지역 이동과 행복 인식에 대한 연구: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5(1): 40-81.

임정빈·최재녕·홍근석. (2012).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통한 삶의 질과 지역이주 간의 관계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3): 217-242.

임태경. (2023). 인구감소시대 혁신도시 개발정책의 인구 분산효과에 대한 논의: 수도권·비수도권·같은권역내 청년인구 순유입효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4): 235-259.

전영옥·박세진. (2024). 생활환경 만족도가 계속 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8(3): 173-190.

정민영. (2023).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차이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영아·김윤지. (2021).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57-76.

주상현·윤성호. (2025). 지방정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현황과 정책점 함의: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9(1): 315-343.

채성주·배민기·백기영. (2014). 지역 낙후도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과 이동 요인: 충북 시·군을 사례로. 「국토연구」, 81: 91-103.

최선·이정은. (2022). 지방정부 청년정책과 이주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청년들의 이주요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0(4): 155-180.

최열·김형준. (2012).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거이동 결정요인 비교 분석. 「국토계획」, 47(4): 219-231.

최은영·구동기·조순기. (201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II): 이동 가구 특성과 선택성. 「한국지

역지리학회지」, 15(2): 123-136.
최재국·문국경. (2021). 사회적 자본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77-95.
통계청. (2023).「청년층 통계」.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s://kosis.kr
홍성효·임준홍. (2023). 주거환경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주택금융연구」, 7(2): 133-153.
Amérigo, M., & Aragonés, J. I. (1997).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7(1), 47–57.
Brown, B. B., Perkins, D. D., & Brown, G. (2004). Crime, new housing, and housing incivilities in a first-ring suburb: Multilevel relationships across time. *Housing Policy Debate*, 15(2), 301–345.
Carstensen, L. L., Isa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3): 165–181.
Clark, W. A. V., & Maas, R. (2015). Interpreting migration through the prism of reasons for mov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21(1), 54–67.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Kley, S. (2011). Explaining the stages of migration within a life-course framework.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4), 469–486.
Kley, S. A., & Mulder, C. H. (2010). Considering, planning, and realizing migration in early adulthood: The influence of life-course events and perceived opportunities on leaving the city in Germany.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5(4), 497–516.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Lu, M. (1998). Analyzing migration decisionmaking: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ial satisfaction, mobility intentions, and moving behavior.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8), 1473–1495.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Todaro, M.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38–148.

윤정윤(尹貞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에서 생활과학 박사학위(노년기 다차원적 빈곤에 관한 연구, 2021)를 취득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정부, 지역소멸, 취약계층의 빈곤 등이다.(jyyoon@inje.ac.kr)

〈논문접수일: 2025. 6. 26 / 심사개시일: 2025. 7. 2 / 심사완료일: 2025. 8. 11〉

Abstract

Migration Intentions among Youth and Middle-Aged Adults in Gimhae: Focusing on Perceptions of Local Infrastructure and Social Integration

Yoon, JungYoon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migration intention among youth (aged 19–39) and middle-aged adults (aged 40–64) residing in Gimhae, Gyeongsangnam-do, by age group. For the analysis, data from the 「2024 Regional Settlement Value Orientation Monitoring」 survey conducted by Inje University were used.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examines how individual-level variables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income, and residential period) and regional-level variables (satisfaction with local living infrastructure and perception of social integration) affect migration intention. The results show that, for the youth group,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healthcare, and cultural infrastructure, as well as a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significantly reduce migration intention, whil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al environment is associated with higher migration intention. For middle-aged adults, education level, residential period,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and safety, and perception of respect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were significant factor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imhae—a city that forms an independent living sphere despite its proximity to major metropolitan areas such as Busan and Changwon—and provides empirical data for developing age-specific local settlement policy strategies.

Key Words: migration intention, local living infrastructure, social integration perception, youth, middle-aged adults